

2공항 올해 핵심 추진과제 포함

국토부, 어제 윤 대통령에 주요업무 보고 관심
연내 사업추진 여부 결론 본격 추진 의지 해석
“제주, 적극 의견 개진·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했다. 정부가 올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고 본격 후속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에 나섰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제주 제2공항 등 지방거점공항 건설을 통해 거점 간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이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을 강조하면서 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의 발목을 잡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최근 보완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2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안을 다시 작성해 환경부와 재협의를 나설 전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결과가 이전 정부와 다를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제주 제2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임 때부터 일관되게 제주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드러내왔기에 정부 정책 판단의 무게추는 사업 추진에 점점 더 기울고 있는 모양

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된 도정은 제주 제2공항 관련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 향후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제주자치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지사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목표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 만큼 제주가 좀 더 목소리를 적극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의 추진 여부가 연내 확정될 경우 도내 찬반 진영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갈등 관리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문주란 너머로 선명하게 보이는 성산일출봉 18일 서귀포시 성산을 광치기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활짝 피어난 문주란꽃과 성산일출봉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풍경을 선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작년 제주 감귤 조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총 1조271억 추계... 2020년 비해 8% 가량 증가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생산량·품질 향상 영향
노지감귤 시장 격리·러시아 수출 확대 등도 한몫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제주 감귤의 총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감귤출하연합회는 2021년산 감귤 유통처리 현황을 최종 분석한 결과, 조수입이 1조 271억원으로 추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0년산 감귤 조수입 9508억 원보다 8% 증가한 수치로, 감귤산업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도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의무화되면서 품질이 좋아진 점을 조수입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규격 외 감귤이 시장격리되고 월동 감귤 품질이 향상된 점도 주요인으로 꼽혔다.

노지감귤 대비 만감류 생산량이 증가한 점도 조수입 증가에 기여했다고 제주도는 분석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류 전체 처리량은 61만3118t으로, 전년도 63만2921t에 비해 3.1% 감소했다.

노지온주의 경우 46만7293t, 만감류 9만2983t, 하우스 감귤 2만7009t, 월동온주 2만5833t이 각각 출하됐다.

감귤 조수입은 1조271억원으로 2020년산 감귤 조수입 9508억원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온주는 4873억원, 만감류 3701억원, 하우스 감귤 918억원, 월동온주 779억원 등을 나타냈다.

만감류 조수입은 2020년산 3095억원에서 2021년산 3701억원으로

606억원(19.6%)이 증가했다. 노지온주 조수입은 2021년산 4873억원으로, 2020년산 4719억원 대비 15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 둔화로 감귤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지감귤 시장격리(4만t), 2L과 러시아 수출 확대를 통한 규격 외 감귤 유통 차단 및 출하물량 조절도 안정적인 가격유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확대,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중심의 철저한 품질관리,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117
잠정집계 18일 누계 24만9722
<17시 기준>

제주 ‘위케이션 선도지역’ 육성 본격도, 상품 기획·내달 중 수도권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케이션 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달 중 위케이션 상품 기획 후 내달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위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카름스테이, 웰니스 등 새로운 여행콘텐츠를 근무 이후 여가활동으로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등과 공동 민간투자를 통한 위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고 농어촌 빈집,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체류형 위케이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읍면 권역별로 위케이션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케이션 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2022 제주 트레블 쇼케이스’에서 서울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춰 제주 위케이션 및 로컬 관광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행사 후속으로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협의를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 및 회원을 대상으로 숙소 및 공유 오피스 등을 지원해 연내에 최대 750명이 위케이션에 참가하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강다혜기자

제8회 이어도 문화의날

이어도 문화의날

이어도 사생대회

공모내용

- 주 제 | 환상의 섬 이어도, 바다사랑, 해녀이야기
- 참가부문 | 제주도내 초등부 / 유치부
- 작품규정 | ①규격-8절지 캔트지
② 제목, 소속, 학년, 반, 성명, 연락처, 작품 뒷면에 반드시 기입
(본 제출정보 이용은 이어도 사생대회 행사에 한함)
- 제출기간 | 2022. 08. 11.(목) 17시까지
- 제출장소 | 63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 제주신문사 3층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연락처:064-744-7224)
- 결과통보 | 제주신문 홈페이지 공개, 시상대상 입상자는 개별 유선 연락

시상내용

- 대상(2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및 상금 (유치부 1명 · 초등부 1명 10만원 문화상품권)
- 금상(3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및 상금 (유치부 1명 · 초등부 2명 7만원 문화상품권)
- 은상(15명) | 한국해양아동문화연구소장상 및 상금 (5만원 문화상품권)
- 동상(50명) | 제주신문사장상 및 상금 (2만원 문화상품권)
- 시상식
 - 일시 : 2022. 08. 27.(토) 오후6시30분
 - 장소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 야외 돔

※본 사생대회 입상자들에게 예코백 및 수상작품 게재 기념달력 증정 (단, 입상자 외 참가자의 경우 선착순 지급)

· 주최 : **제주신문**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주관 : **한국해양아동문화연구소**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